

# 해남군, 113개 공약 군민과 함께 실천한다

민선 8기 공약이행률 77.3% 순항  
군민평가단 의견 군정 적극 반영  
5대 분야 60건 완료 43건 정상 추진  
군민 참여 확대 '군민평가단' 운영

해남군의 민선 8기 공약이행률이 80%에 근접하며 군민과의 약속이 순항 중이다. 군은 이에 안주하지 않고 주민배심원제, 공약이행평가단 회의 등을 통해 공약 사업이행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22일 해남군에 따르면 지난 17일 민선 8기 공약이행 상황을 군민 참여로 점검하는 군민평가단 1차회의를 개최했다.

공약이행 군민평가단은 공약이행 과정에서 군민의 직접 참여를 확대하고 의사결정의 질적인 향상과 투명성을 위해 만 18세 이상 군민 중 성·연령·지역을 고려한 무작위 추첨과 전화면접을 통해 선발된 총 30명의 군민으로 구성됐다.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전문기관인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를 통해 선발되었으며 연간 3회에 걸쳐 평가단 회의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1차 평가단 회의에서는 군민평가단 위촉식에 이어 '매니페스토 운동과 주민배심원'을 주제로 한 교육과 총 12건의 심의 안건을 선정하는 1차 회의가 열렸다.

앞으로 군민평가단에서는 사업별 담당자로부터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후 분임별 심의를 실시하게 된다. 최종 3차회의는 내년 1월 7일 열릴 예정으로 분임 토의 결과를 토대로 조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 군민의 의견대로 방향을 설정할 예정이다.

군민평가단을 통해 도출된 의견은 군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으로 최종 권고안 및 수용여부는 해남군 누리집에 공개해 군민과의 약속 이행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한편 현재 해남군은 민선 8기 5대 분야 총 113개 공약 세부 사업 중 60건을 완료



지난 17일 해남군이 군민평가단 1차 회의를 열었다.

해남군 제공

및 계속 추진하고 43건이 정상 추진 중이다. 공약 추진율은 77.3%로 공약사업 대부분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명원관 해남군수는 "군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지속적인 자체점검과 주민

배심원제, 공약이행평가단 회의 등을 통해 공약사업을 내실 있게 진행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과 예산상황 등에도 적극적으로 나서 모든 공약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해남=전연수 기자

## 무안군, 토양개량제 신청 내년 2월20일까지

무안군은 내년 2월20일까지 토양 환경 보전과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육성을 위해 2026~2028년 토양개량제 공급 신청을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규산질비료와 석회고토·폐화석 등의 석회질 비료를 전액 무상으로 공급하는 사업으로, 농지별로 3년 1주기로 실시한다.

지역별로는 2026년도 무안읍·일로읍·삼향읍·몽탄면, 2027년도 현경면·정계면, 2028년도 해제면·망운면·운남면 지역을 공급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농업경영정보에 등록된 농업경영체로서 토양개량제 공급을 희망하는 농가는 토양개량제 신청서를 작성해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해야 하며 다른 시군 농지는 해당 시군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인은 농업경영정보에 등록된 필지에만 토양개량제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비료를 공급받을 때도 농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해야 한다.

함평농업기술센터소장은 "토양개량제 공급을 바라는 농업인은 기간 내에 빠짐없이 신청하길 바라며 토양개량제 공급을 통해 토양환경개선 및 건강한 농산물 생산 기반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무안=김행언 기자

## 강진군, 참전·보훈 명예수당 인상 20~40% 보훈가족 예우 강화

강진군이 참전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강화 및 지역간 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으로 2024년에 이어 2025에도 단계적인 수당 인상을 확정했다.

22일 강진군에 따르면 올해 참전·보훈유공자 명예수당을 기존 금액에서 2만~3만원 인상했으며 2025년 1월부터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월 10만원에서 12만원 △참전유공자 배우자 유족수당은 월 5만원에서 7만원으로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은 월 7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한다.

지급 대상은 국가보훈부에 등록돼있는 참전유공자와 배우자, 보훈명예수당의 경우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산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본인 및 그 유족으로 지급 기준일 현재 강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12월 기준 강진군에 거주하는 참전유공자는 337명, 보훈대상자는 217명이며 수당 신청은 가까운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국가의 평화와 자유를 위해 본인의 희생으로 나라를 지킨 국가유공자의 예우를 강화하는 것은 국가와 함께 지자체에서도 함께 할 당연한 도리이다"며 "앞으로도 국가유공자들과 그의 가족들이 영예롭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진군은 26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2025년 4월 준공을 목표로 보훈회관을 건립 중이다.

군은 5·18민주화운동, 현충일 추념행사, 6·25전쟁 기념행사 등 보훈 행사를 개최해 순국선열의 넋을 기리고 애국, 희생정신을 추모하고 있다. 강진=김윤복 기자

##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 독려 목포시, 31일까지

목포시가 2024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5만1678건 83억원을 부과·고지하고 기한 내 납부를 독려하기 위한 홍보활동에 나섰다.

이번 자동차세는 2024년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1월·3월·6월·9월에 연세액을 납부했거나 6월에 연세액(10만원 미만)이 부과된 차량은 제외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 및 우체국에서 납부할 수 있다.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금융기관의 CD/ATM기에 체크(신용)카드 또는 통장을 넣어 본인의 자동차세 확인 및 납부가 가능하다.

계좌이체(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스마트 위택스', ARS납부(142211)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동차세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목포시 세정과(061-270-3448)로 문의하면 된다.

목포=정기찬 기자

## 신안군, 항일농민운동 인문학 강좌

신안군이 일제강점기 소작쟁의가 발생한 읍면 주민을 대상으로 '신안군 항일농민운동 인문학 강좌'를 열었다.

신안군 항일농민운동은 1923년 암태도, 1924년 하의도, 1925년 지도와 도초도, 1926년 자은도, 1927년 매화도로 확산된 소작쟁의 운동을 말한다.

사단법인 신안군농민운동기념사업회는(이사장 박천우) 일제강점기 불의한 권력에 저항했던 선조의 열과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마련했다. 인문학 강좌는 지난 19일 암태면사무소에서 열린 '개벽의 작가 송기숙과 암태도'를 시작으로 오는 26일 '일본인 운동가의 수기를 통해 본 하의도 농지탈환운동'이 하의면에서 열리며 2025년 1월까지 소작쟁의가 발생한 읍면 주민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이번 인문학 강좌를 계기로 하의3도농지탈환운동 기록 유산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해 신안군 항일농민운동 정신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안=홍일갑 기자



영암지역자활센터와 영암군여성자원봉사협의회회원들이 지난 12일 김장김치를 만들었다. 이날 담근 김치 600박스는 관내 취약계층에 전달됐다.

영암군 제공

## 영암자활센터·여성자원봉사협, 김장 김치 나눔

영암지역자활센터와 영암군여성자원봉사협의회가 지난 12일 지역사회 14개 단체 200여 명이 참여하는 '사랑의 김치 나누기' 행사를 열었다.

22일 영암군에 따르면 지역사회 연대

로 이뤄진 이날 행사에는 해군 제3함대사령부 3수리장 무기체계공작 전사봉사단(단장 전종복)이 함께 해 그 의미를 더했다.

이날 담근 김치 600박스는 관내 취약

계층 가정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삼행 영암지역자활센터장은 "겨울철 형편이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서준 지역사회 14개 단체 구성원들에게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다양한 봉사활동의 장에 지역사회가 함께 나설 수 있도록 연결하고 조직하겠다"고 말했다.

영암=한교진 기자

## 신안군, 종합청렴도 평가 2023년 대비 2등급 상승

### 청렴서한문 발송 노력 등

신안군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2024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3등급을 달성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수치는 전년 대비 2등급 상승한 결과다.

이번 평가는 △민원인과 내부공직자의 참여로 이루어진 청렴제검도 △기관의 부패방지 노력을 평가하는 청렴노력도 △부패사건 발생 현황을 반영한 부패실태 등 지표를 평가하여 종합청렴도 등급

을 발표했다.

신안군의 분야별 청렴도 평가에서 두드러진 것은 청렴노력도다.

지난해보다 3등급 상승한 2등급으로 평가받았다.

청렴노력도는 기관의 청렴 실천 의지를 평가하는 지표로 기관장이 다양한 소통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내외부 캠페인 행사에서 청렴 메시지를 전파하는 등 리더십을 발휘한 사례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박우량 군수는 연초부터 군민과 공직

자들에게 청렴서한문을 발송하는 것을 시작으로 직접 청렴교육을 강의하고 12개 유관기관과 청렴 협의체(Cluster)를 구축하는 등 다양하게 청렴도 향상 시책을 실천했다.

신안군 관계자는 "이번 청렴도 평가 결과를 돌아보며 민원인의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청렴 인프라 구축에 더욱 힘쓰는 한편 부패취약분야를 수시 점검하여 청렴한 신안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신안=홍일갑 기자